

문 1. 다음 <표>는 초등학교 한자교육 관련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근거하여 정리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초등학교 한자교육 적정 한자 수에 대한 응답자 유형별 응답 분포

(단위: 명, %)

적정 한자 수	300자 미만	300 ~ 450자 미만	450 ~ 600자 미만	600 ~ 750자 미만	750 ~ 900자 미만	900자 이상	무응답	합
교사	825 (30.5)	786 (29.1)	594 (22.0)	169 (6.3)	146 (5.4)	75 (2.8)	106 (3.9)	2,701 (100.0)
학부모	298 (11.8)	542 (21.5)	491 (19.5)	229 (9.1)	367 (14.6)	523 (20.7)	71 (2.8)	2,521 (100.0)
계	1,123 (21.5)	1,328 (25.4)	1,085 (20.8)	398 (7.6)	513 (9.8)	598 (11.5)	177 (3.4)	5,222 (100.0)

<표 2> 초등학교 한자교육 적정 담당주체에 대한 응답자 유형별 응답 분포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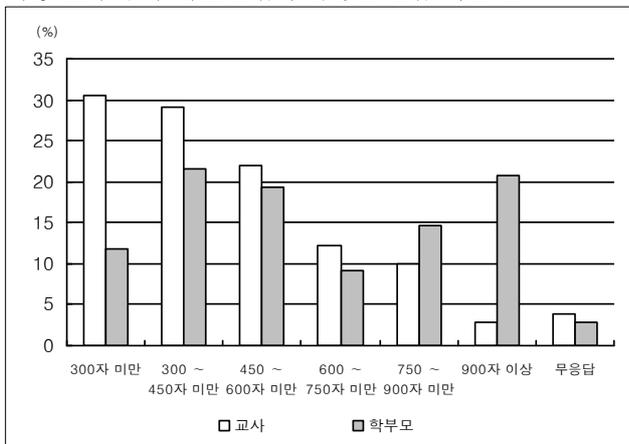
담당 주체	담임교사	교과전담 교사	방과후 학교 교사	보조교사	기타	무응답	합
교사	1,568 (58.1)	414 (15.3)	348 (12.9)	180 (6.7)	58 (2.1)	133 (4.9)	2,701 (100.0)
학부모	468 (18.6)	1,604 (63.6)	230 (9.1)	96 (3.8)	40 (1.6)	83 (3.3)	2,521 (100.0)
계	2,036 (39.0)	2,018 (38.6)	578 (11.1)	276 (5.3)	98 (1.9)	216 (4.1)	5,222 (100.0)

<표 3> 초등학교 한자교육 적정 시간에 대한 응답자 유형별 응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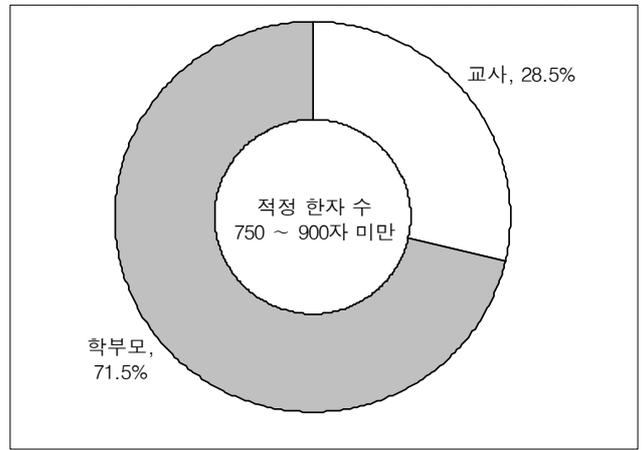
(단위: 명, %)

적정 시간	교사		학부모	
	수	비율	수	비율
주당 30분	1,146	42.4	189	7.5
주당 1시간	1,085	40.2	702	27.8
주당 2시간	299	11.1	1,489	59.1
주당 3시간	26	1.0	95	3.8
주당 4시간	9	0.3	15	0.6
무응답	136	5.0	31	1.2
계	2,701	100.0	2,5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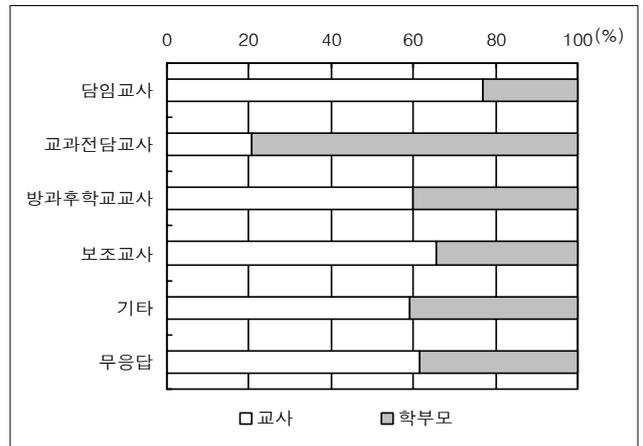
① 적정 한자 수에 대한 응답자 유형별 응답 비율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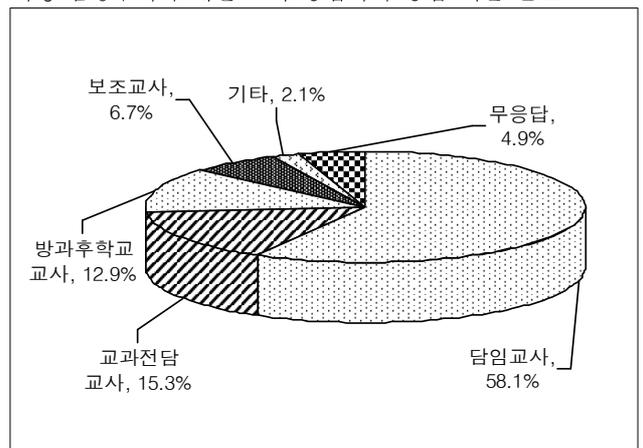
② 적정 한자 수 750 ~ 900자 미만 응답에 대한 응답자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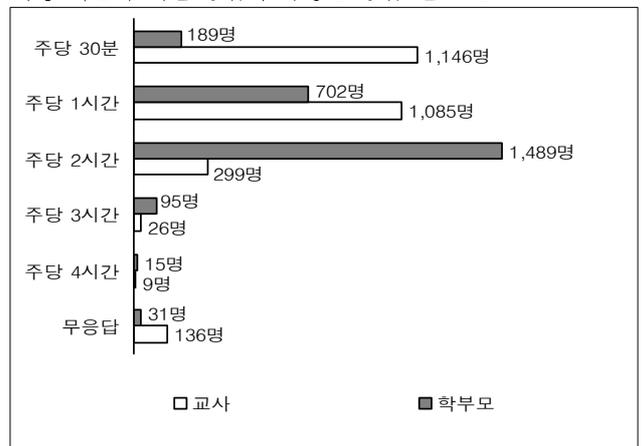
③ 적정 담당주체 응답에 대한 응답자 구성비



④ 적정 담당주체에 대한 교사 응답자의 응답 비율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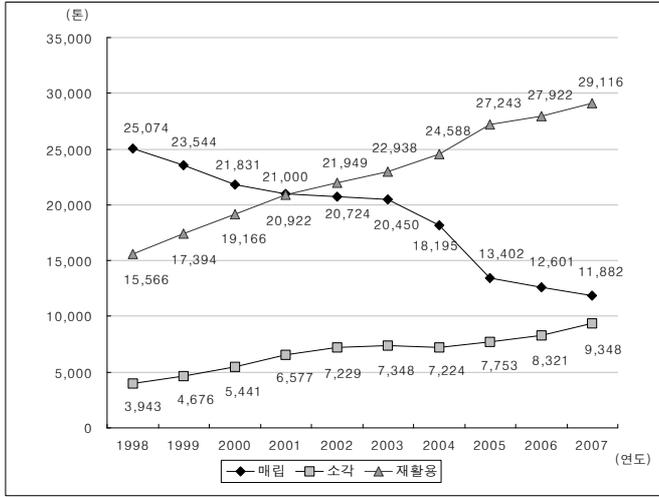


⑤ 적정 시간에 대한 응답자 유형별 응답 빈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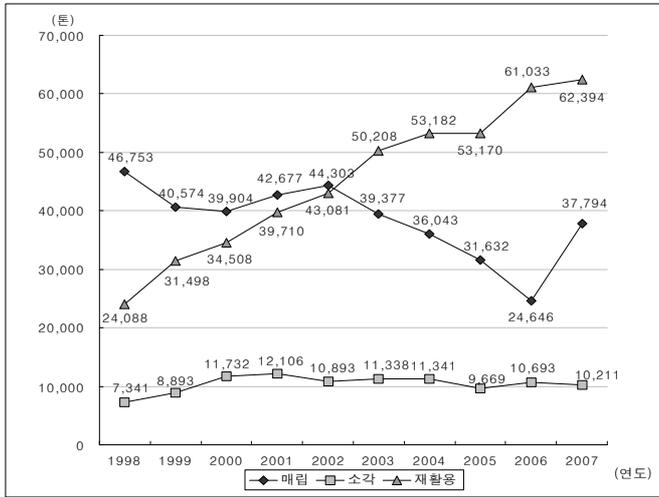


문 2. 다음 <그림>은 1998 ~ 2007년 동안 어느 시의 폐기물 처리 유형별 처리량 추이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림 1> 생활폐기물 처리 유형별 처리량 추이



<그림 2> 사업장폐기물 처리 유형별 처리량 추이



※ 1) 폐기물 처리 유형은 매립, 소각, 재활용으로만 구분됨.

2) 매립률(%) = $\frac{\text{매립량}}{\text{매립량} + \text{소각량} + \text{재활용량}} \times 100$

3) 재활용률(%) = $\frac{\text{재활용량}}{\text{매립량} + \text{소각량} + \text{재활용량}}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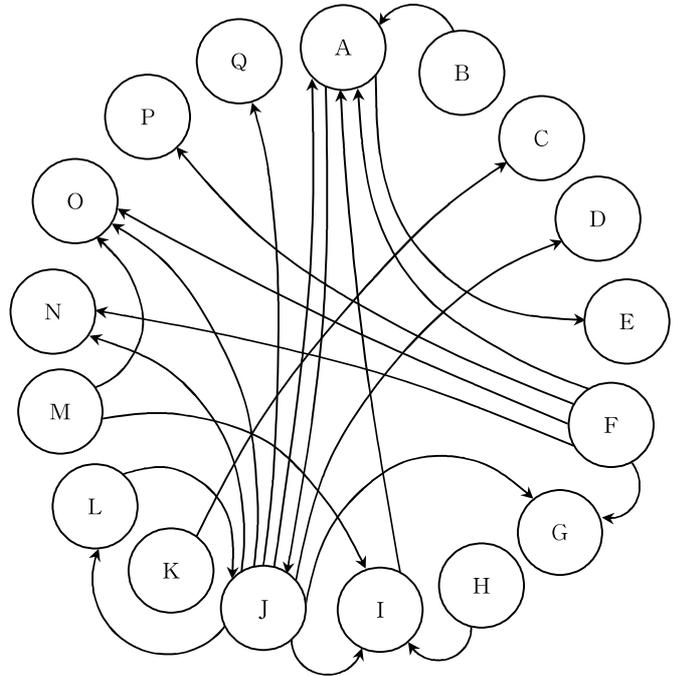
<보 기>

- ㄱ.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각각의 재활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매립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 ㄴ. 생활폐기물 전체 처리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 ㄷ. 2006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각각 매립률이 25% 이상이다.
- ㄹ.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률은 1998년에 40% 미만이나 2007년에는 60% 이상이다.
- ㅁ. 2007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전체 처리량은 각각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ㄷ, ㅁ
- ④ ㄱ, ㄴ, ㄹ
- ⑤ ㄷ, ㄹ, ㅁ

문 3. 다음 <그림>은 지난 3년 동안 A ~ Q기업 간에 발생한 소송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림> 지난 3년 동안 A ~ Q기업 간의 소송관계도



※ '→'는 기업 간의 소송관계를 나타냄. 예를 들어, B→A는 B기업이 원고가 되어 A기업을 피고로 한 번의 소송을 제기했음을 의미함.

- 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기업의 수는 8개이다.
- ② 가장 많은 수의 기업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받은 기업은 A기업이다.
- ③ J기업은 가장 많은 8개의 소송을 제기했다.
- ④ 소송을 제기하지만 하고 소송을 제기받지 않은 기업의 수는 4개이다.
- ⑤ 서로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A기업과 J기업, L기업과 J기업의 경우뿐이다.

문 4. 다음 <표>는 A시와 B시의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A, B시의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민원접수	처리 상황		완료된 민원의 결과	
		미완료	완료	수용	기각
A시	19,699	()	18,135	()	3,773
B시	40,830	()	32,049	23,637	()

※ 1) 접수된 민원의 처리 상황은 '미완료'와 '완료'로만 구분되며, 완료된 민원의 결과는 '수용'과 '기각'으로만 구분됨.

2) 수용비율(%) = $\frac{\text{수용건수}}{\text{완료건수}} \times 100$

- ① A시는 B시에 비해 '민원접수' 건수가 적고, 시민 1인당 '민원접수' 건수도 B시에 비해 적다.
- ② '수용' 건수는 B시가 A시에 비해 많고, 수용비율도 B시가 A시에 비해 높다.
- ③ '미완료' 건수는 B시가 A시의 5배를 넘지 않는다.
- ④ B시의 '민원접수' 건수 대비 '수용' 건수의 비율은 50% 미만이다.
- ⑤ A시와 B시 각각의 '민원접수' 건수 대비 '미완료' 건수의 비율은 10%p 이상 차이가 난다.

문 5. 다음 <표>는 6개 부서로 이루어진 어느 연구소의 부서별 항목별 예산과 인원 현황을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표 1> 부서별 항목별 예산 내역 (단위: 만원)

부서	항목	2010년 예산	2011년 예산
A	인건비	49,560	32,760
	기본경비	309,617	301,853
	사업비	23,014,430	41,936,330
	소계	23,373,607	42,270,943
B	인건비	7,720	7,600
	기본경비	34,930	33,692
	사업비	7,667,570	9,835,676
	소계	7,710,220	9,876,968
C	인건비	7,420	7,420
	기본경비	31,804	31,578
	사업비	2,850,390	3,684,267
	소계	2,889,614	3,723,265
D	인건비	7,420	7,600
	기본경비	24,050	25,672
	사업비	8,419,937	17,278,382
	소계	8,451,407	17,311,654
E	인건비	6,220	6,220
	기본경비	22,992	24,284
	사업비	2,042,687	4,214,300
	소계	2,071,899	4,244,804
F	인건비	4,237,532	3,869,526
	기본경비	865,957	866,791
	사업비	9,287,987	15,042,762
	소계	14,391,476	19,779,079
전체		58,888,223	97,206,713

<표 2> 2010년 부서별 직종별 인원 (단위: 명)

부서	정·현원		직종별 현원				
	정원	현원	일반직	별정직	개방형	계약직	기능직
A	49	47	35	3	1	4	4
B	32	34	25	0	1	6	2
C	18	18	14	0	0	2	2
D	31	29	23	0	0	0	6
E	15	16	14	0	0	1	1
F	75	72	38	1	0	8	25
계	220	216	149	4	2	21	40

* 2010년 이후 부서별 직종별 인원 수의 변동은 없음.

- ① 모든 부서 중 정원이 가장 많은 부서와 가장 적은 부서의 2011년 예산을 합하면 2011년 전체 예산의 30% 이상이다.
- ② 2011년 부서별 인건비 예산 합은 2011년 전체 예산의 3% 미만이다.
- ③ 2010년 현원 1인당 기본경비 예산이 가장 적은 부서는 B이다.
- ④ 2011년 각 부서의 현원과 일반직을 비교할 때, 현원 대비 일반직 비중이 가장 큰 부서는 2011년 모든 부서 중 기본경비 예산이 가장 적다.
- ⑤ 2011년 사업비는 모든 부서에서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그 중 A부서의 전년대비 사업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문 6. 다음 <표>는 1885 ~ 1892년 동안 조선의 대청·대일 무역규모를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표> 조선의 대청·대일 무역규모 (단위: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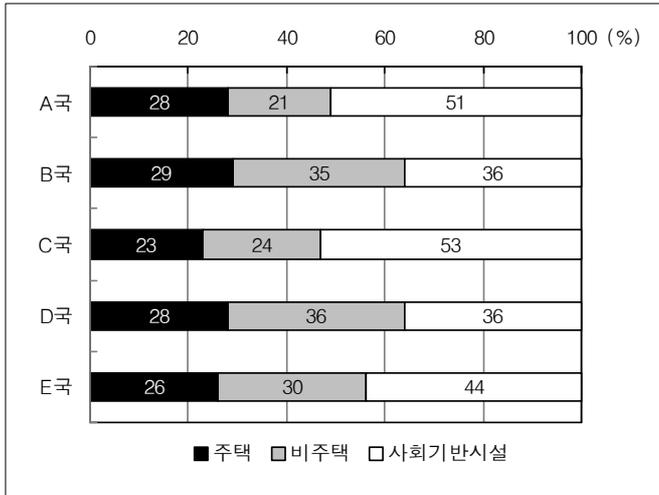
연도	조선의 수출액			조선의 수입액		
	대청	대일	비 (청:일관)	대청	대일	비 (청:일관)
1885	9,479	377,775	2:98	313,342	1,377,392	19:81
1886	15,977	488,041	3:97	455,015	2,064,353	18:82
1887	18,873	783,752	2:98	742,661	2,080,787	26:74
1888	71,946	758,238	9:91	860,328	2,196,115	28:72
1889	109,789	1,122,276	9:91	1,101,585	2,299,118	32:68
1890	70,922	3,475,098	2:98	1,660,075	3,086,897	35:65
1891	136,464	3,219,887	4:96	2,148,294	3,226,468	40:60
1892	149,861	2,271,628	6:94	2,055,555	2,555,675	45:55

* 무역수지 = 수출액 -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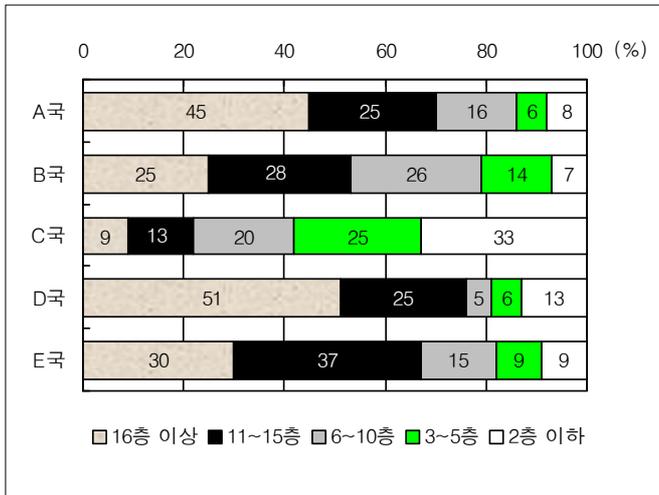
- ① 1891년에 대일 무역수지는 적자이다.
- ② 1885 ~ 1892년 동안 매년 조선의 대일 수출액은 같은 해 조선의 대청 수출액의 10배 이상이다.
- ③ 1885 ~ 1892년 동안 매년 조선의 대일 수입액은 같은 해 조선의 대청 수입액보다 크다.
- ④ 1886 ~ 1892년 동안 조선의 대청·대일 수입액 전체에서 대일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감소한다.
- ⑤ 1885 ~ 1892년 동안 조선의 대일 수입액과 조선의 대청 수입액의 차이가 가장 큰 해는 1890년이다.

※ 다음 <그림>과 <표>는 A ~ E국의 건설시장에 관한 자료이다. <그림>과 <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7 ~ 문 8]

<그림 1> 건설시장의 부문별 시장규모 구성비(2010년)



<그림 2> 건설시장의 주택부문에서 층수별 시장규모 구성비(2010년)



<표 1> 건설시장의 주택부문에서 16층 이상 시장규모 비율 (2006 ~ 2010년)

(단위: %)

연도 \ 국가	A	B	C	D	E
2006	20	20	8	15	37
2007	27	22	10	23	35
2008	33	27	11	33	32
2009	37	28	10	45	31
2010	45	25	9	51	30

<표 2> 건설시장의 시장규모(2010년)

(단위: 조원)

국가	A	B	C	D	E
시장 규모	50	150	100	200	250

문 7. 다음 중 2010년 A ~ E국의 건설시장의 주택부문 시장규모를 순서대로 나열할 때 가장 큰 국가인 (가)국과 A ~ E국의 건설 시장 주택부문 중 16층 이상 시장규모를 순서대로 나열할 때 두 번째로 작은 국가인 (나)국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국

(나)국

- | | | |
|---|---|---|
| ① | B | C |
| ② | D | A |
| ③ | D | C |
| ④ | E | A |
| ⑤ | E | C |

문 8. 위의 자료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 ㄱ. 2010년 A ~ E 각국의 건설시장에서 주택부문 시장규모 비율이 각각 가장 낮다.
- ㄴ. 2010년 C국의 건설시장 시장규모에서 주택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3%이고, D국의 건설시장의 주택부문 층수별 시장규모에서 16층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51%이다.
- ㄷ. 2006 ~ 2010년 동안 건설시장의 주택부문에서 16층 이상 시장규모 비율이 매년 증가한 국가 수는 2개이다.
- ㄹ. 2010년 A ~ E국 중, 건설시장의 주택부문에서 3 ~ 10층 시장규모를 순서대로 나열할 때 시장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B국이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문 9. 다음 <표>는 2011년 국내 6개 유망 벤처기업의 매출액과 CEO 연봉에 대한 자료이다. <표>와 <보기>를 근거로 하여 (A) ~ (E)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2011년 국내 6개 유망 벤처기업의 매출액과 CEO 연봉
(단위: 억원)

벤처기업	매출액	CEO 연봉
(A)	()	9.5
(B)	155	7.5
(C)	445	()
(D)	600	()
(E)	290	8.5
TB기술	185	5.0

— <보 기> —

- ㄱ. GF환경의 매출액은 6개 기업 중 매출액 하위 3개 기업의 매출액 합과 동일하다.
- ㄴ. GF환경 CEO는 매출액의 2.5%를 연봉으로 받는다.
- ㄷ. 과천파밍 CEO 연봉은 TB기술 CEO 연봉의 2배이다.
- ㄹ. OH케미컬 CEO는 블루테크 CEO보다 매출액 대비 연봉이 높다.
- ㅁ. KOREDU와 TB기술의 매출액 합은 과천파밍의 매출액과 동일하다.

- | | (A) | (B) | (C) | (D) | (E) |
|---|--------|-------|------|--------|--------|
| ① | KOREDU | OH케미컬 | 과천파밍 | GF환경 | 블루테크 |
| ② | KOREDU | 과천파밍 | GF환경 | 블루테크 | OH케미컬 |
| ③ | KOREDU | 블루테크 | 과천파밍 | GF환경 | OH케미컬 |
| ④ | OH케미컬 | 블루테크 | GF환경 | 과천파밍 | KOREDU |
| ⑤ | OH케미컬 | 블루테크 | GF환경 | KOREDU | 과천파밍 |

문 10. 다음 <표>는 '갑'팀 구성원(가 ~ 라)의 보유 역량 및 수행할 작업(A ~ G)과 작업별 필요 역량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갑'팀 구성원의 보유 역량

(○: 보유)

역량 \ 구성원	가	나	다	라
	자기개발	○	○	
의사소통	○		○	○
수리활용		○		○
정보활용	○		○	
문제해결		○	○	
자원관리	○			
기술활용	○	○		
대인관계			○	○
문화이해	○		○	
변화관리	○	○	○	○

<표 2> 수행할 작업과 작업별 필요 역량

(○: 필요)

작업 \ 역량	자기개발	의사소통	수리활용	정보활용	문제해결	자원관리	기술활용	대인관계	문화이해	변화관리
	A			○					○	
B					○			○	○	
C					○	○				
D		○		○		○				○
E	○				○					○
F		○	○					○		
G		○					○			○

※ 각 작업별 필요 역량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구성원만이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

- ① '갑'팀 구성원 중 D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G작업도 수행할 수 있다.
- ② '갑'팀 구성원 중 A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F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보유 역량 외에 '의사소통' 역량이 추가로 필요하다.
- ③ '갑'팀 구성원 중 E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
- ④ '갑'팀 구성원 중 B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기술활용' 역량을 추가로 보유하면 G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 ⑤ '갑'팀 구성원 중 C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문 11. 다음 <보고서>는 일제강점기 경기도 인구 변화에 관한 것이다. <보기>에서 아래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잘못 인용된 자료를 모두 고르면?

<보고서>

- 일제강점기 경기도 인구는 1910년 142만 3,051명, 1931년 206만 160명, 1942년 322만 3,856명으로 조사 연도마다 매년 증가하였다. 경기도 인구가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10년 13% 미만에서 1942년에는 15%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 1910 ~ 1942년 동안 5차례 실시된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 조사 연도마다 전국 인구는 증가추세였으나, 남녀인구는 각각 1,500만 명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조사 연도 대부분 남성인구가 여성인구에 비해 많았으나 1942년 조사에서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를 초과하였다.
- 경기도 내 일본인 수는 1910년 5만 4,760명, 1931년 10만 323명, 1942년 20만 6,627명으로, 1910년 대비 1942년의 경기도 전체 인구의 증가율보다 경기도 내 일본인의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42년 경기도 내 일본인의 인구는 경기도 내 중국인의 인구와 비교할 때 2배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 1912년, 1931년, 1942년 경기도 내 조선인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였던 업종은 농축산업이었으며, 1912년 대비 1942년의 공업종사자 수는 9배 이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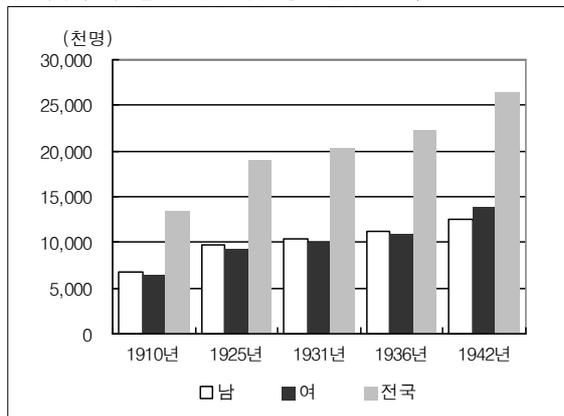
<보 기>

ㄱ. 일제강점기 경기도 인구 변화

(단위 : 명)

구분	1910년	1931년	1942년
경기도 인구	1,423,051	2,060,160	3,223,856
전국 인구	13,313,017	20,262,958	26,361,401

ㄴ. 일제강점기 전국 인구 및 성별인구 변화



ㄷ. 일제강점기 경기도 내 일본인과 중국인 인구 변화

(단위 : 명)

구분	1910년	1931년	1942년
경기도 내 일본인	54,760	100,323	206,627
경기도 내 중국인	70,342	94,206	100,756
경기도 인구	1,423,051	2,060,160	3,223,856

ㄹ. 일제강점기 경기도 내 업종별 조선인 종사자 수 (단위 : 명)

구분	1912년	1931년	1942년
농축산업	1,096,971	1,282,133	1,483,718
공업	31,933	81,646	310,895
상업	150,328	226,319	492,545
광업	0	0	28,972
기타	126,286	148,783	333,236
계	1,405,518	1,738,881	2,649,366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ㄷ, ㄹ

문 12. 다음 <표>는 저탄소 녹색성장 10대 기술분야의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저탄소 녹색성장 10대 기술분야의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단위 : 건)

기술분야	연도		2009		2010		2011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태양광/열/전지	1,079	1,534	898	1,482	1,424	950		
수소바이오/연료전지	1,669	900	1,527	1,227	1,393	805		
CO ₂ 포집저장처리	552	478	623	409	646	371		
그린홈/빌딩/시티	792	720	952	740	867	283		
원전플랜트	343	294	448	324	591	282		
전력IT	502	217	502	356	484	256		
석탄가스화	107	99	106	95	195	88		
풍력	133	46	219	85	363	87		
수력 및 해양에너지	126	25	176	45	248	33		
지열	15	7	23	15	36	11		
전체	5,318	4,320	5,474	4,778	6,247	3,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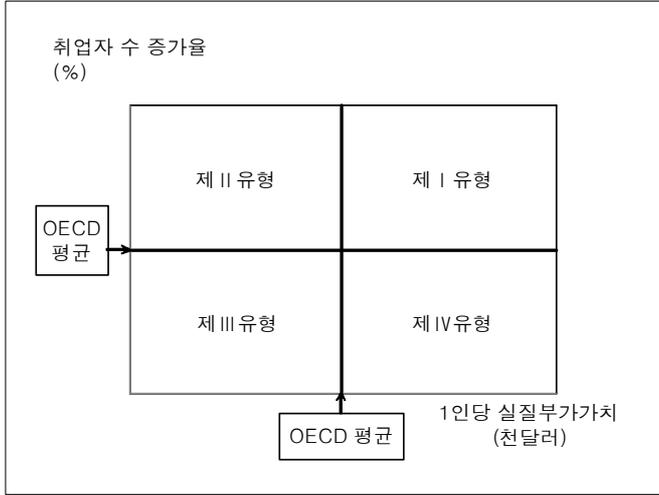
<보 기>

- ㄱ. 2009 ~ 2011년 동안 출원건수와 등록건수가 모두 매년 증가한 기술분야는 없다.
- ㄴ. 2010년에 전년대비 출원건수가 감소한 기술분야에서는 2011년 전년대비 등록건수도 감소하였다.
- ㄷ. 2011년 등록건수가 많은 상위 3개 기술분야의 등록건수 합은 2011년 전체 등록건수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 ㄹ. 2011년 출원건수가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한 기술분야의 수는 3개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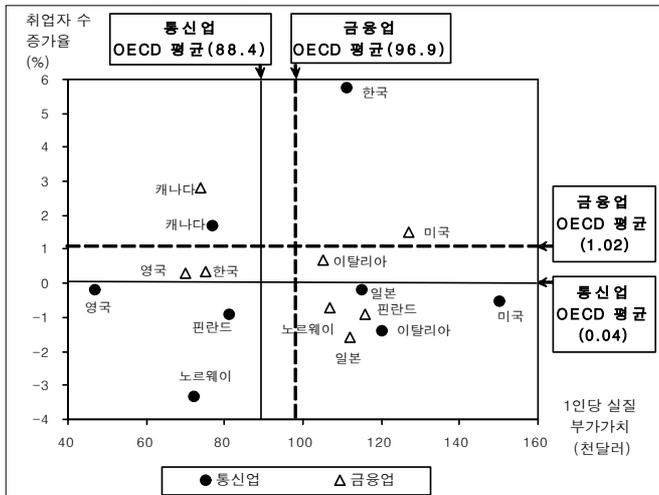
문 13. 다음 <그림 1>은 1인당 실질부가가치와 취업자 수 증가율에 따른 국가 유형 구분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는 <그림 1>을 주요 국가의 통신업과 금융업에 적용하여 작성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림 1> 1인당 실질부가가치와 취업자 수 증가율에 따른 국가 유형 구분



※ OECD 평균은 해당 업종의 OECD 회원국 평균을 나타냄.

<그림 2> 주요 국가의 통신업 및 금융업의 1인당 실질부가가치와 취업자 수 증가율



<보 기>

- ㄱ. 한국과 일본의 통신업의 경우, 1인당 실질부가가치는 통신업의 OECD평균보다 각각 높다.
- ㄴ. 한국의 경우 통신업의 1인당 실질부가가치와 취업자 수 증가율은 각각 금융업의 1인당 실질부가가치와 취업자 수 증가율보다 크다.
- ㄷ. 통신업의 제III유형에 속한 국가의 수와 금융업의 제IV 유형에 속한 국가의 수는 같다.
- ㄹ. 국가 유형에 따라 구분한 결과 통신업 유형과 금융업 유형이 동일한 국가의 수는 4개이다.
- ㅁ. 금융업에서 미국의 1인당 실질부가가치는 캐나다의 1인당 실질부가가치에 비하여 2배 이상이다.

- ① ㄱ, ㄴ, ㄹ
- ② ㄱ, ㄴ, ㅁ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문 14. 다음 <표>는 농구대회의 중간 성적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표> 농구대회 중간 성적(2012년 2월 25일 현재)

순위	팀	남은 경기 수	전체		남은 홈 경기 수	홈 경기		최근 10경기		최근 연승 연패
			승수	패수		승수	패수	승수	패수	
1	A	6	55	23	2	33	7	9	1	1 패
2	B	6	51	27	4	32	6	6	4	3 승
3	C	6	51	27	3	30	9	9	1	1 승
4	D	6	51	27	3	16	23	5	5	1 승
5	E	5	51	28	2	32	8	7	3	1 패
6	F	6	47	31	3	28	11	7	3	1 패
7	G	6	47	31	4	20	18	8	2	2 승
8	H	6	46	32	3	23	16	6	4	2 패
9	I	6	40	38	3	22	17	4	6	2 승
10	J	6	39	39	2	17	23	3	7	3 패
11	K	5	35	44	3	16	23	2	8	4 패
12	L	6	27	51	3	9	30	2	8	6 패
13	M	6	24	54	3	7	32	1	9	8 패
14	N	6	17	61	3	7	32	5	5	1 승
15	O	6	5	73	3	1	38	1	9	3 패

※ 1) '최근 연승 연패'는 최근 경기까지 몇 연승(연속으로 이김), 몇 연패(연속으로 짐)를 했는지를 뜻함. 단, 연승 또는 연패하지 않은 경우 최근 1경기의 결과만을 기록함.

2) 각 팀은 홈과 원정 경기를 각각 42경기씩 총 84경기를 하며, 무승부는 없음.

3) 순위는 전체 경기 승률이 높은 팀부터 1위에서 15위까지 차례로 결정되며, 전체 경기 승률이 같은 경우 홈 경기 승률이 낮은 팀이 해당 순위보다 하나 더 낮은 순위로 결정됨.

4) 전체(홈 경기) 승률 = $\frac{\text{전체(홈 경기) 승수}}{\text{전체(홈 경기) 승수} + \text{전체(홈 경기) 패수}}$

- ① A팀은 최근에 치른 1경기만 지고 그 이전에 치른 9경기를 모두 이겼다.
- ② I팀의 최종 순위는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 8위가 될 수 있다.
- ③ L팀과 M팀은 각 팀이 치른 최근 5경기에서 서로 경기를 치르지 않았다.
- ④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 1위 팀은 변경될 수 있다.
- ⑤ 2012년 2월 25일 현재 순위 1~3위인 팀의 홈 경기 승률은 각각 0.8 이상이다.

문 19. 다음 <표>는 2009년 주요 환경영향인자별 등급을 정하기 위한 자료이다. 아래 <등급산정방식>에 따라 등급을 산정할 때, 각 <표>의 (A) ~ (C)를 바르게 짝지는 것은?

<등급산정방식>

- '전문가순위값'은 전문가들의 투표를 거쳐 득표 수가 많은 인자 순서대로 1부터 7까지 부여한다.
- '평균중요도순위값'은 인자별 4년(2005 ~ 2008년) 간 중요도의 평균 값이 큰 순서대로 1부터 7까지 부여한다.
- '최종등급'은 인자별로 '종합순위값'을 구한 후, 작은 값부터 1부터 7까지 차례로 등급을 부여하되, '종합순위값'이 동일하면 '평균중요도순위값'이 작은 인자부터 등급을 부여한다.

* 종합순위값 = 전문가순위값 + 평균중요도순위값 - 7

<표 1> 환경영향인자별 전문가 투표 결과

인자	득표수	전문가순위값
수질	25	()
지형·지질	11	()
대기질	13	()
(A)	27	1
자연경관	6	7
소음	10	()
(B)	8	()
합계	100	

<표 2> 환경영향인자별 연도별 중요도

인자	연도				평균 중요도 순위값
	2005	2006	2007	2008	
지형·지질	70	50	70	60	1
동식물상	30	30	20	30	()
자연경관	50	70	50	70	()
대기질	60	40	60	40	()
수질	40	60	40	50	()
소음	20	20	30	10	()
문화재	10	10	10	20	7

<표 3> 환경영향인자별 최종등급

인자	최종등급
지형·지질	1
동식물상	()
자연경관	()
대기질	(C)
수질	()
소음	6
문화재	()

- | (A) | (B) | (C) |
|--------|------|-----|
| ① 동식물상 | 문화재 | 2 |
| ② 문화재 | 동식물상 | 2 |
| ③ 동식물상 | 문화재 | 3 |
| ④ 문화재 | 동식물상 | 3 |
| ⑤ 동식물상 | 문화재 | 4 |

문 20. 다음 <표>는 2006 ~ 2009년 사업자 유형별 등록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2006 ~ 2009년 사업자 유형별 등록 현황

(단위: 천명)

유형		연도			
		2006	2007	2008	2009
법인사업자	등록사업자	420	450	475	()
	신규등록자	65	()	75	80
	폐업신고자	35	45	()	55
일반사업자	등록사업자	2,200	()	2,405	2,455
	신규등록자	450	515	()	450
	폐업신고자	350	410	400	()
간이사업자	등록사업자	1,720	1,810	()	1,950
	신규등록자	380	440	400	()
	폐업신고자	310	()	315	305
면세사업자	등록사업자	500	515	540	565
	신규등록자	105	100	105	105
	폐업신고자	95	85	80	80
전체 등록사업자		4,840	5,080	5,315	5,470

- * 1) 사업자 유형은 법인사업자,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 로만 구분됨.
- 2) 각 유형의 사업자 수는 해당 유형의 등록사업자 수를 의미함.
- 3) 당해년도 등록사업자 수 = 직전년도 등록사업자 수 + 당해년도 신규 등록자 수 - 당해년도 폐업신고자 수

<보 기>

- ㄱ. 2007 ~ 2009년 동안 전체 등록사업자 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매년 감소하였다.
- ㄴ. 2006 ~ 2009년 동안 일반사업자 중에서 폐업신고자 수가 가장 많았던 연도와 법인사업자 중에서 폐업신고자 수가 가장 많았던 연도는 일치한다.
- ㄷ. 2006 ~ 2009년 동안 전체 등록사업자 수 중 간이사업자 수와 면세사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의 합은 매년 50% 이상이다.
- ㄹ. 2005 ~ 2009년 동안 전체 등록사업자 수 중 면세사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10% 이상이다.

- | | |
|--------|--------|
| ① ㄱ | ② ㄱ, ㄴ |
| ③ ㄱ, ㄹ | ④ ㄴ, ㄷ |
| ⑤ ㄷ, ㄹ | |

문 21. 다음 <표>는 2001 ~ 2005년 국방부의 감사 횟수 및 감사실적을 처분 종류별, 업무 종류별, 결함 원인별로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1> 처분 종류별 감사실적 건수 (단위: 건)

연도	감사 횟수	감사 실적	처분 종류						
			징계	경고	시정	주의	개선	통보	권고
2001	43	1,039	25	52	231	137	124	271	199
2002	42	936	15	65	197	203	106	179	171
2003	36	702	19	54	140	152	57	200	80
2004	38	560	10	62	112	99	56	168	53
2005	35	520	9	39	107	92	55	171	47

<표 2> 업무 종류별 감사실적 건수 (단위: 건)

연도	감사 실적	업무 종류							
		행정 일반	인사	정훈 교육	의무	군수 시설	방위 산업	예산 국고금	기타
2001	1,039	419	63	3	27	424	54	0	49
2002	936	217	43	9	29	448	60	64	66
2003	702	192	35	2	3	195	101	132	42
2004	560	164	10	9	6	162	56	122	31
2005	520	167	0	3	2	194	72	60	22

<표 3> 결함 원인별 감사실적 건수 (단위: 건)

연도	감사 실적	결함 원인				
		제도결함	관계 규정 이해 부족	감독소홀	운영 불합리	기타
2001	1,039	36	15	52	739	197
2002	936	17	72	70	686	91
2003	702	12	143	72	407	68
2004	560	21	64	45	385	45
2005	520	18	21	8	452	21

<보 기>

- ㄱ. 감사 횟수당 '감사실적' 건수는 매년 감소했다.
- ㄴ. 2005년 '군수시설' 업무 감사에서 결함 원인이 '운영 불합리'인 경우는 126건 이상이다.
- ㄷ. 2002 ~ 2005년 동안 전년대비 증감방향이 '감사실적' 건수의 전년대비 증감방향과 동일한 처분 종류는 세 가지이다.
- ㄹ. 2005년 결함원인이 '운영불합리'인 건수의 당해년도 '감사실적' 건수 대비 비중은 2001년 처분 종류가 '시정'인 건수의 당해년도 '감사실적' 건수 대비 비중보다 작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ㄴ, ㄷ, ㄹ

문 22. 다음 <표>는 A지역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원자력발전소 사고 전·후 식수 조달원 변경에 대해 사고 후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표> 원자력발전소 사고 전·후 A지역 조달원별 가구 수 (단위: 가구)

사고 전 조달원 \ 사고 후 조달원	사고 후 조달원			
	수돗물	정수	약수	생수
수돗물	40	30	20	30
정수	10	50	10	30
약수	20	10	10	40
생수	10	10	10	40

※ A지역 가구의 식수 조달원은 수돗물, 정수, 약수, 생수로 구성되며, 각 가구는 한 종류의 식수 조달원만 이용함.

- ① 사고 전에 식수 조달원으로 정수를 이용하는 가구 수가 가장 많다.
- ② 사고 전에 비해 사고 후에 이용 가구 수가 감소한 식수 조달원의 수는 3개이다.
- ③ 사고 전·후 식수 조달원을 변경한 가구 수는 전체 가구 수의 60% 이하이다.
- ④ 사고 전에 식수 조달원으로 정수를 이용하던 가구는 사고 후에도 정수를 이용한다.
- ⑤ 각 식수 조달원 중에서 사고 전·후에 이용 가구 수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은 생수이다.

문 23. 다음 <표>는 6명 학생들의 지난 달 독서 현황을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학생별 독서 현황

구분 \ 학생	지호	영길	다솜	대현	정은	관호
성별	남	남	여	남	여	남
독서량(권)	0	2	6	4	8	10

<보 기>

- ㄱ. 학생들의 평균 독서량은 5권이다.
- ㄴ. 남학생이면서 독서량이 5권 이상인 학생 수는 전체 남학생 수의 50% 이상이다.
- ㄷ. 독서량이 2권 이상인 학생 중 남학생 비율은 전체 학생 중 여학생 비율의 2배 이상이다.
- ㄹ. 여학생이거나 독서량이 7권 이상인 학생 수는 전체 학생 수의 50% 이상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문 24. 다음 <표>는 어느 금융기관의 업종별 Exposure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서?

<표> 업종별 Exposure 추이(2009 ~ 2011년)
(단위: %, %p)

업종	구분	2009			2010			2011		
		대출 비중	매출 비중	Exposure	대출 비중	매출 비중	Exposure	대출 비중	매출 비중	Exposure
어·광업		0.86	0.14	0.72	0.96	0.13	0.83	0.57	0.12	0.45
음식료품		6.33	3.36	2.97	5.92	3.16	2.76	4.81	3.02	1.79
섬유의복		4.61	1.00	3.61	3.93	0.92	3.01	3.45	0.90	2.55
종이목재		4.41	0.93	3.48	4.69	0.87	3.82	2.86	0.80	2.06
화학		13.64	12.50	1.14	12.93	13.25	-0.32	10.24	13.27	-3.03
의약품		5.17	0.87	4.30	5.14	0.93	4.21	4.15	0.96	3.19
비금속광물		2.77	1.26	1.51	3.13	1.13	2.00	2.20	1.08	1.12
철강금속		9.87	7.49	2.38	9.57	7.64	1.93	7.14	7.13	0.01
기계		6.07	2.34	3.73	6.28	2.51	3.77	11.22	2.59	8.63
전기전자		13.75	20.95	-7.20	14.13	19.99	-5.86	20.88	19.5	1.38
의료정밀		1.02	0.44	0.58	0.91	0.49	0.42	2.04	0.54	1.50
운수장비		8.20	13.35	-5.15	8.28	13.68	-5.40	6.42	13.72	-7.30
담배제조업		1.45	0.90	0.55	1.5	0.77	0.73	1.65	0.71	0.94
유통업		8.37	9.77	-1.40	7.61	9.53	-1.92	6.24	10.57	-4.33
전기가스업		1.48	5.94	-4.46	1.24	6.3	-5.06	0.85	6.49	-5.64
건설업		3.91	6.44	-2.53	4.84	6.64	-1.80	3.58	6.60	-3.02
운수창고업		3.89	4.43	-0.54	4.03	4.35	-0.32	2.19	4.22	-2.03
통신업		1.07	5.26	-4.19	1.16	5.19	-4.03	0.85	5.03	-4.18
관광업		3.13	2.63	0.50	3.75	2.52	1.23	8.66	2.75	5.91
전체		100.00	100.00	-	100.00	100.00	-	100.00	100.00	-

- ※ 1) Exposure(%p) = 대출비중(%) - 매출비중(%)
- 2) Over Exposure는 Exposure > 0을 의미함.
- 3)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보 기>

- ㄱ. 2010년 전년대비 Exposure와 2011년 전년대비 Exposure가 모두 증가한 업종 수는 4개이다.
- ㄴ. 2009 ~ 2011년 동안 전체 업종 수에서 Over Exposure에 해당하는 업종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60%를 초과한다.
- ㄷ. 2010년 대비 2011년 대출비중 증가폭이 가장 큰 업종이 2010년 대비 2011년의 Exposure 증가폭도 가장 크다.
- ㄹ. 2009년 대비 2010년 매출비중 감소폭이 가장 큰 업종이 2009년 대비 2010년 Exposure 증가폭도 가장 크다.
- ㅁ. 운수장비업종의 2010년과 2011년 대출비중의 전년대비 증감방향은 2010년과 2011년 Exposure의 전년대비 증감방향과 각각 일치한다.

- ① ㄱ, ㄴ, ㄹ
- ② ㄱ, ㄷ, ㄹ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ㅁ
- ⑤ ㄴ, ㄹ, ㅁ

문 25. 다음 <표>는 정부의 스마트워크 추진과제별 예산 계획과 스마트워크 유형별 취업인구수 추정치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표 1> 스마트워크 추진과제별 예산 계획(2012 ~ 2017년)
(단위: 억원)

추진과제	세부과제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워크센터 구축	공공부문 워크센터 구축	12	48	120	120	0	0	300
	서비스 환경조성	2	24	66	97	97	97	383
	글로벌 허브 구축	0	8	8	8	0	0	24
모바일 워크 활성화	모바일 업무환경 조성	0	15	15	0	0	0	30
	모바일 행정 서비스 강화	0	20	30	30	0	0	80
	재택·원격근무 장비지원	40	19	27	30	33	35	184
원격 협업 이용 활성화	모바일 서비스 기반 마련	0	15	15	15	0	0	45
	통합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	0	7	10	13	0	0	30
보안 업무 환경 정비	공공부문 영상회의	0	20	20	20	0	0	60
	공공부문 서버기반 컴퓨팅	0	15	15	20	0	0	50
제도 개혁	서버기반 컴퓨팅연구개발	0	10	10	10	0	0	30
	스마트워크제도 개선	1	1	1	1	1	1	6
기타	직무 및 성과분석	0	10	10	10	10	10	50
	민간부문 지원	0	4	4	4	4	4	20
	사회적 일자리 확대	0	2	2	2	2	2	10
대국민 홍보		0	2	2	2	2	2	10
계		55	220	355	382	149	151	1,312

<표 2> 스마트워크 유형별 취업인구수 추정치(2012 ~ 2017년)
(단위: 천명)

구분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재택근무	공공	39	58	85	116
민간	343		480	686	1,029	1,715	2,881
소계	382		538	771	1,145	1,864	3,065
스마트 워크센터	공공	1	2	4	6	6	7
	민간	3	37	62	125	125	125
	소계	4	39	66	131	131	132
모바일 워크	공공	6	9	13	27	54	102
	민간	25	1,000	1,500	2,800	2,500	3,300
	소계	31	1,009	1,513	2,827	2,554	3,402

※ 스마트워크는 재택근무, 스마트워크센터, 모바일워크로만 이루어지며, 중복하여 취업한 인구는 없음.

- ① 2017년에는 스마트워크 취업인구수가 650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 ② 2012 ~ 2017년 동안 추진과제 중 '제도개혁'에 투입되는 예산의 합은 세부과제 중 '대국민 홍보'에 투입되는 예산의 합의 5배를 초과한다.
- ③ 추진과제 중 2012 ~ 2017년 6년간 투입되는 예산의 합이 가장 큰 추진과제는 '워크센터 구축'이며, 세부과제 중 2012년에 비해 2017년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세부과제는 '서비스 환경조성'이다.
- ④ 2012 ~ 2017년 동안 스마트워크 추진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해에는 전년에 비해 증가한 전체 스마트워크 취업인구수도 가장 많다.
- ⑤ 2014 ~ 2017년 동안 세부과제 '재택·원격근무 장비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매년 감소한다.

문 26. 다음 <표>는 A기업 직원의 직무역량시험 영역별 점수 상위 5명의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A기업 직원의 직무역량시험 영역별 점수 상위 5명
(단위: 점)

순위	논리		추리		윤리	
	이름	점수	이름	점수	이름	점수
1	하선행	94	신경은	91	양선아	97
2	성혜지	93	하선행	90	박기호	95
3	김성일	90	성혜지	88	황성필	90
4	양선아	88	황성필	82	신경은	88
5	황성필	85	양선아	76	하선행	84

- ※ 1) A기업 직원 중 같은 이름을 가진 직원은 없음.
- 2) 전체 순위는 '총점(세 영역 점수의 합)'이 높은 순서대로 정함.
- 3) A기업 직무역량시험 영역은 논리, 추리, 윤리로만 구성됨.
- 4) A기업 직원 전체는 세 영역에 모두 응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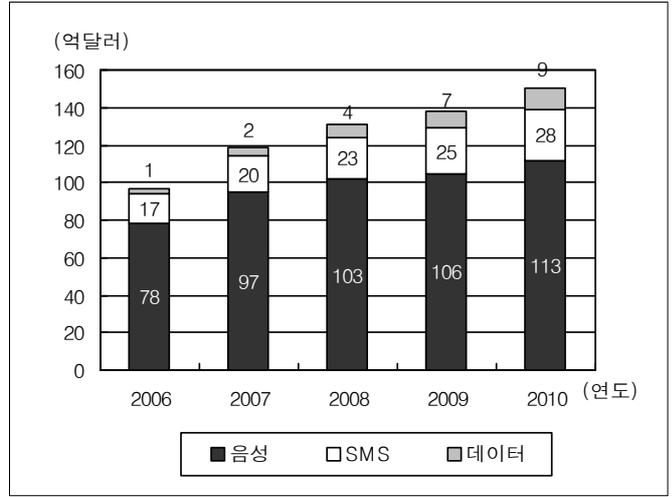
<보 기>

- ㄱ. A기업 직원 중 총점이 가장 높은 직원은 하선행이다.
- ㄴ. 양선아는 총점을 기준으로 A기업 전체 순위 2위이다.
- ㄷ. 신경은의 총점은 26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 ㄹ. A기업 직무역량시험의 시험 합격 최저점이 총점 기준 251점이라면 김성일은 불합격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문 27. 다음 <그림>과 <표>는 어느 나라의 이동통신시장 추이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림> 이동통신 서비스 유형별 매출액



<표 1> 4대 이동통신사업자 매출액
(단위: 백만달러)

구 분	A사	B사	C사	D사	합 계
2008년	3,701	3,645	2,547	2,958	12,851
2009년	3,969	3,876	2,603	3,134	13,582
2010년	3,875	4,084	2,681	3,223	13,863
2011년 1 ~ 9월	2,709	3,134	1,956	2,154	9,953

<표 2> 이동전화 가입대수 및 보급률
(단위: 백만대,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가입대수	52.9	65.9	70.1	73.8	76.9
보급률	88.8	109.4	115.5	121.0	125.3

※ 보급률(%) = $\frac{\text{이동전화 가입대수}}{\text{전체 인구}} \times 100$

<보 기>

- ㄱ. 2007 ~ 2010년 동안 이동통신 서비스 유형 중 데이터 매출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매년 50% 이상이다.
- ㄴ. 2010년 이동전화 보급률은 가입대수의 증가와 전체 인구의 감소에 따라 125.3%에 달한다.
- ㄷ. 2007 ~ 2010년 동안 이동전화 가입대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매년 감소한다.
- ㄹ. 2011년 10 ~ 12월 동안 4대 이동통신사업자의 월별 매출액이 당해년도 1 ~ 9월까지의 월평균 매출액을 유지한다면 2011년 매출액 합계는 전년도보다 감소할 것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ㄹ
- ⑤ ㄷ, ㄹ

문 28. 다음 <표>는 국내에 취항하는 12개 항공사의 여객 및 화물 운항 실적을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국내 취항 항공사의 여객 및 화물 운항 실적

구분	항공사	취항 노선 수 (개)	운항횟수 (회)	여객운항 횟수 (회)	화물운항 횟수 (회)
국내 항공사	A	137	780	657	123
	B	88	555	501	54
	국내항공사 전체	225	1,335	1,158	177
외국 항공사	C	5	17	13	4
	D	3	5	0	5
	E	4	7	7	0
	F	4	18	14	4
	G	12	14	0	14
	H	13	31	0	31
	I	12	28	0	28
	J	9	76	75	1
	K	10	88	82	6
	L	17	111	102	9
	외국항공사 전체	89	395	293	102

- ※ 1) 운항횟수 = 여객운항횟수 + 화물운항횟수
 2) 여객지수 = $\frac{\text{여객운항횟수}}{\text{운항횟수}} = 1 - \text{화물지수}$
 3) 국내에 취항하는 항공사의 수는 총 12개임.
 4) 각 항공사 간 취항노선의 중복과 공동운항은 없음.

<보 기>

- ㄱ. 화물지수가 1인 항공사의 수가 여객지수가 1인 항공사의 수보다 많다.
 ㄴ. 여객지수가 B항공사보다 큰 외국항공사의 수는 4개이다.
 ㄷ. 국내항공사가 취항하는 전체 노선 수 중 A항공사가 취항하는 노선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65%를 넘는다.
 ㄹ. '국내항공사 전체'의 여객지수가 '외국항공사 전체'의 여객지수보다 크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문 29. 다음 <표>는 세계 주요 지진의 인명피해 현황을 나타낸 자료이다. <표>와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A ~ F에 해당하는 지진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세계 주요 지진의 인명피해 현황

지진	발생년도	지진의 규모(M)	사망자 수(명)	부상자 수(명)
A	1976	7.5	240,000	799,000
B	1995	6.9	5,500	37,000
C	1999	7.6	2,400	8,700
D	2001	7.6	20,000	166,000
E	2003	6.9	27,000	30,000
F	2008	7.9	69,000	374,000

※ M은 리히터 지진규모의 단위임.

<보고서>

세계 주요 지진에 의한 인명피해 현황을 통해 지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지진과 '나'지진의 규모는 동일하나 '가'지진에 의한 사망자 수가 '나'지진에 의한 사망자 수의 4배 이상이었다. 이는 '나'지진이 건물 내진 설계와 주민 대피 훈련이 잘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발생한다 반해, '가'지진은 건물 내진 설계와 주민 대피 훈련이 미흡한 국가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다'지진은 '가'지진보다 지진의 규모가 크지만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는 각각 적게 발생하였는데, 이는 '다'지진 또한 건물 내진 설계와 주민 대피 훈련이 잘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지진에 의한 사망자 수가 같은 규모 지진인 '다'지진에 의한 사망자 수보다 8배 이상 발생하였음을 볼 때, '다'지진이 발생한 국가보다 '바'지진이 발생한 국가의 건물 내진 설계와 주민 대피 훈련이 부족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동일한 국가에서 발생한 '라'지진과 '마'지진의 경우, 비록 지진의 규모는 '마'지진이 크지만 '마'지진에 의한 사망자 수는 '라'지진에 의한 사망자 수의 30% 이하이다. 이는 '라'지진 발생 이후 해당 국가에서 건물의 내진 설계를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꾸준히 높여왔기 때문이다.

- A B C D E F

- ① 가 나 다 바 라 마
 ② 다 가 마 바 나 라
 ③ 다 나 바 마 가 라
 ④ 라 나 다 바 가 마
 ⑤ 마 나 다 바 가 라

문 30. 다음 <보고서>는 우리나라 광물자원 현황에 관한 내용이다. <보고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고서>—

2006년 말 우리나라 광물자원 매장량을 살펴보면 비금속광이 국내 광물자원 매장량의 8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비금속광 중에는 5대 광종의 매장량이 비금속광 매장량의 9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주요 비금속광 중 석회석, 백운석, 대리석은 매장량 가운데 가채매장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70.0%를 초과하고 있다. 백운석의 가채매장량은 석회석 가채매장량의 5.0%에 미달하고 있다.

이들 광물 매장량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석회석의 경우 강원도에 매장량의 79.5%가 집중되어 있다. 강원도에 이어 석회석이 많이 매장된 지역은 충북이며, 그 다음은 경북이다. 백운석과 대리석의 지역별 매장량도 각각 강원, 충북, 경북 순으로 많았다.

이와 같이 석회석 자원이 지역적으로 편재되어 있어 광산도 강원도에 집중되어 있다. 석회석 광산 수는 강원도가 전체 석회석 광산 수의 50.0%를 초과하고 품위별로도 강원도가 고품위, 저품위 광산 수의 50.0%를 각각 초과한다.

※ 가채매장량: 매장량(확정매장량 + 추정매장량) 중 채굴할 수 있는 매장량.

—<보 기>—

ㄱ. 2006년 말 국내 광물자원 매장량 및 가채매장량 현황 (단위: 백만톤, %)

구 분	매장량		가채매장량		
		구성비		구성비	
금속광	115	0.9	90	1.0	
비금속광	5대 광종	11,548	87.7	8,671	94.4
	기타	132	1.0	96	1.0
	소계	11,680	88.7	8,767	95.4
석탄광	1,367	10.4	331	3.6	
계	13,162	100.0	9,188	100.0	

ㄴ. 2006년 말 국내 석회석, 백운석, 대리석 매장량 및 가채매장량 현황 (단위: 천톤)

구분	매장량			가채매장량
	확정	추정		
석회석	515,815	8,941,163	9,456,978	7,146,062
백운석	2,353	448,574	450,927	340,136
대리석	0	65,709	65,709	47,566
계	518,168	9,455,446	9,973,614	7,533,764

ㄷ. 2006년 말 석회석, 백운석, 대리석의 지역별 매장량 현황 (단위: 천톤, %)

구분	석회석			백운석	대리석	합	구성비
	고품위	저품위	소계				
강원	1,346,838	6,343,016	7,689,854	212,315	29,080	7,931,249	79.5
경기	0	410	410	13,062	2,970	16,442	0.2
경북	129,833	34,228	164,061	118,626	420	283,107	2.8
전남	0	2,492	2,492	0	0	2,492	0.0
전북	9,563	7,992	17,555	11,566	0	29,121	0.3
충남	12,740	5,866	18,606	6,952	598	26,156	0.3
충북	163,006	1,400,994	1,564,000	88,406	32,641	1,685,047	16.9
계	1,661,980	7,794,998	9,456,978	450,927	65,709	9,973,614	100.0

ㄹ. 2006년 말 석회석의 품위별 지역별 광산 수 현황 (단위: 개)

품위	지역	광산 수
고품위	강원	48
	경북	14
	전북	5
	충남	6
	충북	25
	소계	98
저품위	경기	1
	강원	47
	경북	8
	전남	4
	전북	5
	충남	3
	충북	18
소계	86	
전체		184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 다음 <표>는 2008년 5~10월 한·중·일 3국의 관광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31 ~ 문 32]

<표 1> 2008년 5~10월 한·중·일 3국 간 관광객 수 및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단위: 천명, %)

국적	여행국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한국	중국	관광객 수	381	305	327	342	273	335
		증감률	-9	-22	-27	-29	-24	-19
	일본	관광객 수	229	196	238	248	160	189
		증감률	-8	-3	-6	-9	-21	-15
중국	한국	관광객 수	91	75	101	115	113	105
		증감률	9	-4	6	-5	7	-5
	일본	관광객 수	75	62	102	93	94	87
		증감률	6	-1	0	-6	1	-5
일본	한국	관광객 수	191	183	177	193	202	232
		증감률	8	4	8	-3	5	3
	중국	관광객 수	284	271	279	281	275	318
		증감률	-17	-20	-15	-21	-17	-10

※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을 의미함.

<표 2> 2008년 5~10월 한국의 관광수지 및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단위: 백만달러, %)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총관광수입	금액	668	564	590	590	780	1,301
	증감률	38	31	38	14	102	131
총관광지출	금액	1,172	1,259	1,534	1,150	840	595
	증감률	-10	-9	2	-25	-30	-57
총관광수지	금액	-504	-695	-944	-560	-60	706
	증감률	38	27	13	44	93	187

※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을 의미함.

<표 3> 2008년 5~10월 관광객 1인당 평균 관광지출 및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단위: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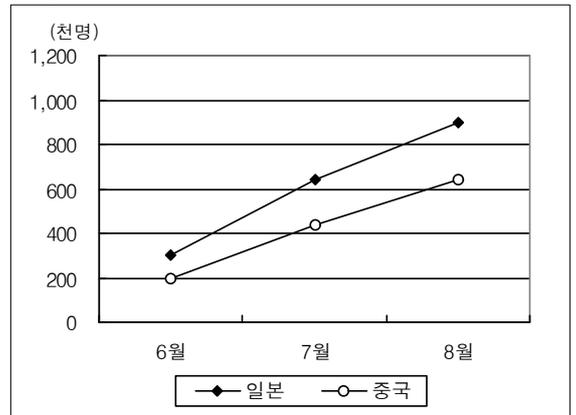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중국인 관광객 한국 내 지출	금액	1,050	900	1,050	1,010	930	600
	증감률	20	10	5	-5	-15	-40
일본인 관광객 한국 내 지출	금액	1,171	1,044	1,038	1,016	1,327	2,000
	증감률	27	27	28	15	92	130
한국인 관광객 해외지출	금액	1,066	1,259	1,350	988	1,026	637
	증감률	-9	-3	16	-15	-13	-50

※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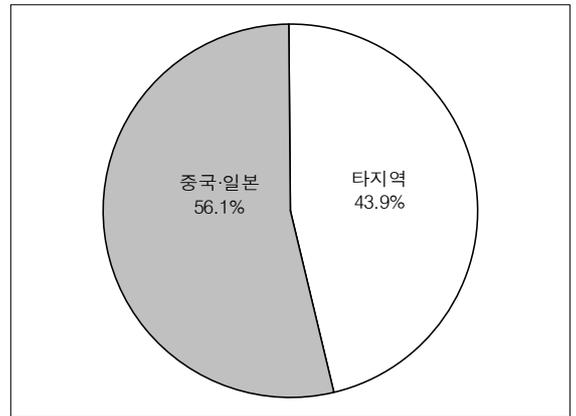
문 31. <표>를 기초로 작성한 <보기>의 그림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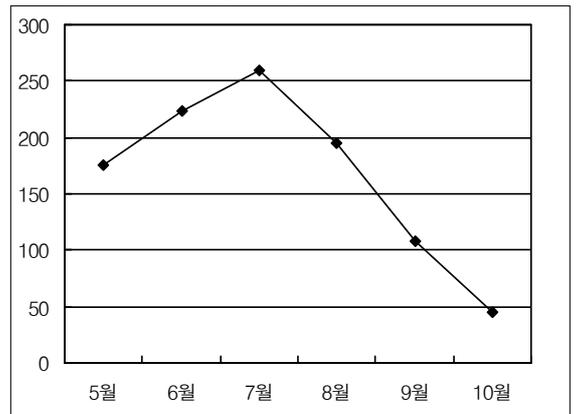
ㄱ. 2007년 6~8월 중국,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 누계



ㄴ. 2008년 10월 한국의 총관광지출에서 중국·일본과 타지역 관광지출의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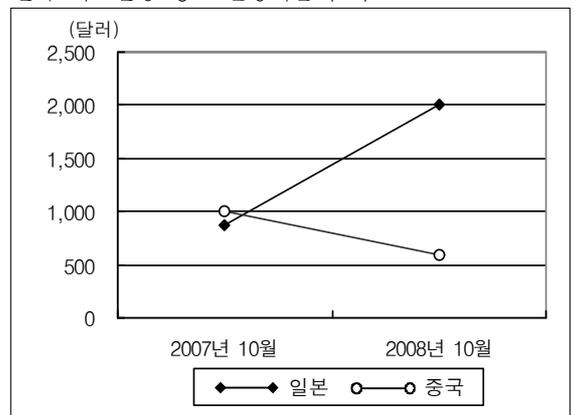


ㄷ. 2008년 한국의 국가관광지출성향



※ 국가관광지출성향 = $\frac{\text{총관광지출}}{\text{총관광수입}} \times 100$

ㄹ. 2007년 10월과 2008년 10월의 중국인 및 일본인 관광객의 한국 내 1인당 평균 관광지출액 비교



문 35. 다음 <표>는 미국의 942개 기업의 임원 9,950명에 대해 조사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기업 내 여성임원 수에 따른 기업 수 분포

기업 내 여성임원 수(명)	기업 수(개)	비율(%)
0	450	()
1	276	29.30
2	148	15.71
3	44	4.67
4	12	1.27
5	6	0.64
6	4	0.42
7	1	0.11
8	1	0.11
계	942	100.00

<표 2> 기업의 성별 임원 근무 현황

구분		평균	최소값	최대값
남성	연령(세)	51.07	26	91
	회사근속기간(년)	10.70	0	72
	현직위 근무기간(년)	3.45	0	53
	기업당 임원 수(명)	9.69	2	50
여성	연령(세)	46.70	29	78
	회사근속기간(년)	8.08	0	46
	현직위 근무기간(년)	2.62	0	17
	기업당 임원 수(명)	0.87	0	8

<표 3> 임원직급별 인원 수 현황

임원 직급	직급별 인원 수(명)			임원의 직급별 비중(%)	
	전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	1,119	1,112	7	12.18	0.85
2	424	417	7	4.57	0.85
3	2,955	2,766	189	30.30	23.02
4	3,385	3,032	353	33.21	43.00
5	1,719	1,499	220	16.42	26.80
6	326	287	39	3.14	4.75
7	22	16	6	0.18	0.73
계	9,950	9,129	821	100.00	100.00

※ 임원직급은 '1'이 최상위직급이며, '7'이 최하위직급임.

- 여성임원이 없는 기업 수는 조사대상 기업 수의 절반 이하이다.
- 조사대상 기업 중 임원 수가 가장 적은 기업은 임원이 2명이다.
- 조사대상 임원 중에서 가장 연령이 낮은 임원은 남성이지만, 평균 연령은 남성임원이 여성임원보다 높다.
- 각 직급에서 직급별 전체임원 수 대비 여성임원 수 비율이 가장 높은 직급은 7급이며, 가장 낮은 직급은 1급이다.
- 임원의 직급별 비중은 남녀 모두 4급이 가장 크다.

문 36. 다음 <표>는 A ~ D광역시의 경찰지구대 수 및 교통안전 준수율과 교통안전문화 조사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표 1> 경찰지구대 수 및 교통안전 준수율 현황(2007 ~ 2008년)
(단위: 개, %)

광역시	경찰 지구대 수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		안전띠 착용률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A	24	26	66.59	70.04	68.37	68.21	63.03	73.27
B	53	51	71.05	72.66	64.32	66.08	64.65	71.65
C	86	86	68.51	70.52	61.97	63.34	66.03	73.53
D	69	69	80.14	83.03	79.80	78.94	64.44	71.00

<표 2> 2008년 교통안전문화 조사영역,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조사영역	조사항목	조사방법
운전행태	-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 안전띠 착용률	· 아래와 같이 1일 3회를 격일로 실시 오전 07:30 ~ 09:00 오후 13:00 ~ 14:00 야간 18:00 ~ 19:30
	-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	· 아래와 같이 1일 2회를 격일로 실시 오전 10:00 ~ 11:30 오후 15:00 ~ 16:30
보행행태	-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 아래와 같이 1일 2회를 격일로 실시 오전 10:00 ~ 11:30 오후 15:00 ~ 16:30
어린이 안전	- 등하교길 안전도	· 아래와 같이 1일 2회를 격일로 실시 오전 08:00 ~ 09:00 오후 15:00 ~ 16:00

※ 교통안전문화 조사는 월 ~ 일요일까지 조사방법에 따라 이루어짐.

- 2008년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조사는 한 주에 최대 12시간 이루어진다.
- 2008년 경찰지구대 수가 두 번째로 많은 광역시는 2008년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 안전띠 착용률,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이 모두 다른 광역시에 비해 가장 높다.
- 2008년 안전띠 착용률의 전년대비 증감폭이 가장 큰 광역시는 C이다.
- 2008년 안전띠 착용률이 전년보다 감소한 광역시의 2008년 경찰지구대 수의 합은 90개 이하이다.
- 2008년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의 전년대비 증감폭이 가장 작은 광역시가 2008년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의 전년 대비 증감폭도 가장 작다.

문 37. 다음 <표>는 '가'야구단 선수 중 9명(A ~ I)의 성적 및 연봉에 대한 자료이다. '가'야구단이 아래 <연봉산정공식>을 적용하여 개별 선수의 연봉을 산정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가'야구단 9명 선수의 성적 및 연봉
(연봉단위: 만달러)

선수	타석	득점	홈런	타점	볼넷	삼진	타율	OPS	조정 전 연봉	조정 계수	최종 연봉
A	600	115	40	125	74	159	0.320	0.990	1,065.5	2.5	2,663.8
B	224	34	0	10	10	30	0.300	0.685	352.8	0.5	176.4
C	480	67	10	62	58	103	0.290	0.790	657.5	1.5	986.3
D	450	50	3	45	25	40	0.275	0.660	598.5	1.0	598.5
E	260	24	5	46	21	35	0.275	0.740	480.5	1.0	480.5
F	84	10	2	11	14	16	0.270	0.770	281.5	0.5	140.8
G	200	20	4	26	25	50	0.252	0.725	()	()	()
H	200	32	4	26	26	50	0.252	0.710	()	()	()
I	310	30	16	47	22	71	0.230	0.717	476.6	1.0	476.6

<연봉산정공식>

- 최종연봉 = 조정 전 연봉 × 조정계수
- 조정 전 연봉 = 타석 × 0.5 + 득점 × 2 + 홈런 × 4 + 타점 × 3 + 볼넷 - 삼진 × 2 + 타율 × 300 + OPS × 150
- 조정계수는 다음 <표>의 조건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선수 성적이 각 등급의 5개 조건 중 3개 이상 충족하는 가장 큰 조정계수를 적용한다.

<표> 조정계수 결정 조건

등급	조 건	조정 계수
1	500타석 이상, 100득점 이상, 30홈런 이상, 100타점 이상, 타율 0.300 이상	2.5
2	400타석 이상, 75득점 이상, 20홈런 이상, 75타점 이상, 타율 0.290 이상	2.0
3	300타석 이상, 50득점 이상, 15홈런 이상, 60타점 이상, 타율 0.280 이상	1.5
4	250타석 이상, 40득점 이상, 10홈런 이상, 40타점 이상, 타율 0.270 이상	1.0
5	250타석 미만, 40득점 미만, 10홈런 미만, 40타점 미만, 타율 0.270 미만	0.5

<보 기>

- ㄱ. '가'야구단 9명 선수 중 A의 최종연봉이 가장 높다.
- ㄴ. H의 최종연봉이 G의 최종연봉보다 15만달러 이상 높다.
- ㄷ. '가'야구단 9명 선수의 최종연봉 합계와 조정 전 연봉 합계의 차이는 1,000만달러 이상이다.
- ㄹ. C의 득점과 타점이 모두 20점씩 늘고 다른 성적은 변동이 없다면, C의 최종연봉은 현재 최종연봉(986.3만달러)보다 500만달러 이상 증가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문 38. 다음 <표>는 출산여성의 임신기간 중 약물 복용횟수와 정상아 및 기형아 출산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약물 복용횟수와 정상아 및 기형아 출산 현황
(단위: 회, 명)

약물 복용횟수	출산여성 수		
	정상아 출산	기형아 출산	합계
0	15,952	48	16,000
1	12,460	40	12,500
2	792	8	800
3	194	6	200
4	38	2	40
5이상	12	3	15

- * 1) 모든 출산여성은 정상아 또는 기형아 중 1명만 출산하였음.
- 2) 기형발생률(%) = $\frac{\text{약물 복용횟수 해당 구간의 기형아 출산여성 수}}{\text{약물 복용횟수 해당 구간의 출산여성 수}} \times 100$
- 3) 기형발생 오즈(odds) = $\frac{\text{기형발생률}}{100 - \text{기형발생률}}$

<보 기>

- ㄱ. 기형발생률은 약물 복용횟수가 1회인 경우가 0회인 경우보다 0.02%p 더 높다.
- ㄴ. 약물 복용횟수가 2회 이하인 경우의 기형발생률은 1.62%이다.
- ㄷ. 약물 복용횟수가 1회씩 증가할수록 기형발생률의 증가폭이 커진다.
- ㄹ. 기형발생 오즈(odds)는 약물 복용횟수가 4회인 경우가 2회인 경우보다 5배 이상 높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문 39. 다음 <표>는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성형수술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1> 성형수술 희망 응답자의 성별 비율 (단위:%)

남성	여성	전체
30.0	37.5	33.0

※ 설문조사 대상자 중 미응답자는 없음.

<표 2> 희망 성형수술 유형별 비율 (단위:%)

성형수술 유형 \ 성별	남성	여성
코 성형	40	44
눈 성형	50	62
치아교정	25	30
피부 레이저 시술	25	30
지방흡입	15	22
기타	5	10

※ 성형수술을 희망하는 사람만 희망 성형수술 유형에 대해 응답하였음 (복수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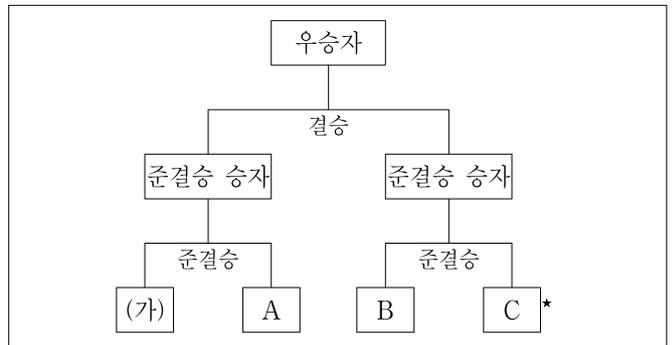
- ① 성형수술을 희망하는 여성응답자 수가 성형수술을 희망하는 남성응답자 수보다 많다.
- ② 설문조사에 참여한 여성응답자 수가 남성응답자 수보다 많다.
- ③ 치아교정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피부 레이저 시술도 희망한다.
- ④ 코 성형을 희망하는 남성응답자 수가 코 성형을 희망하는 여성응답자 수보다 많다.
- ⑤ 치아교정을 희망하는 여성응답자 수가 피부 레이저 시술을 희망하는 남성응답자 수보다 많다.

문 40. 다음 <조건>, <그림>, <경기 결과>에 근거하여 A ~ C에 해당하는 팀 (나) ~ (라)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조 건>

- 가산점을 포함한 3개 종목의 획득 점수(종합 점수)가 가장 높은 팀이 종합 우승, 다음으로 높은 팀이 종합 준우승을 차지한다.
- 종합 점수가 같은 팀이 2개 이상일 때는 공동 수상한다.
- 각 종목별 경기에서 우승과 준우승은 1회의 토너먼트로 결정되며, 공동 우승과 공동 준우승은 없다.
- 경기종목은 축구, 야구, 농구 3개이며, 종목별 우승팀에게는 70점, 준우승팀에게는 50점의 점수가 주어진다.
- 경기에 참가한 (가) ~ (라)팀의 3개 종목 토너먼트 대진표는 동일하다.

<그림> 토너먼트 대진표



※ [C]*에 배정된 팀에게 종목별로 10점의 가산점이 주어짐.

<경기 결과>

- 두 종목 이상에서 우승한 팀은 없었다.
- (가)는 축구에서 우승하였다.
- (나)와 (다)는 야구에서 결승에 진출하였다.
- (라)는 농구에서 준우승하였다.
- (나)는 종합 우승하고 (다)와 (라)는 공동으로 종합 준우승하였다.

- | | | | |
|---|----------|----------|----------|
| | <u>A</u> | <u>B</u> | <u>C</u> |
| ① | (나) | (다) | (라) |
| ② | (나) | (라) | (다) |
| ③ | (다) | (나) | (라) |
| ④ | (다) | (라) | (나) |
| ⑤ | (라) | (나) | (다) |